

## 각박한 세상, 우동 한 그릇의 따뜻함을 전하는 소설



《설국》 이후,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힌 일본 소설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나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정도를 말할 것이다. 하지만 구리 료헤이의 짧은 소설 《우동 한 그릇》도 그 물음의 대답으로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우동 한 그릇》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일본문학 전문 출판사 청조사에서 1989년 7월 초판을 출간하면서부터. 국내엔 처음 소개되는 무명작가의 이 짧은 소설은 이렇다 할 광고나 홍보 없이 입소문으로 퍼져 현재 60만 부 가까이 팔려나갔다. 요즘도 한 달 평균 5천 부씩 꾸준히 팔리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겨울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이한 것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1980년대 말만 해도 독자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흔하디흔한 왜색풍의 미담을 담은 동화 정도로만 치부됐던 이 소설이 국내 독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부터이다. 경제위기가 가정의 몰락과 해체를 불러오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이 소설은 상심한 현대인들에게 가정과 인정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몇몇 대기업들이 사원교육용으로 이 책을 대량 주문한

것도 이 책의 보급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사실 이 소설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다. 뜻밖에 닥친 고난,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착한 사람들, 각박한 인정세대 속에서 더욱 빛나는 따뜻한 인심, 그리고 최후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해피 엔딩.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배경과 소품들은 이 소설의 극적인 서사를 알맞게 수식하고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일본 삿포로의 '북해정'이라는 식당이다. 삿포로는 일본에서 가장 눈이 많은 지역이다. 작품 속에서도 눈은 시종일관 내린다. 북해정은 우동을 파는 식당이다. 천지를 하얗게 덮은 눈은 특유의 서정적인 아우라를 불러일으킨다. 북해정에는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 마음씨 따뜻한 주인 내외가 있다. 일본은 매해 마지막 날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어느 해 마지막 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한 중년 여인이 북해정에 나타난다. 가난한 여인은 아이들과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나눠 먹는다. 북해정의 주인 남자는 남몰래 우동 사리 일인분을 추가로 넣어준다. 그들 세 모자는 이후 매년 북해정을 찾는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 내외는 그들 세 모자를 기다리지만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세 모자는 북해정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중년 부인은 할머니가 되어, 그리고 두 어린 아들은 장성한 사회인이 되어 다시 북해정을 찾는다. 남편과 아버지를 여의었던 그들 세 모자는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던 것.

이 같은 줄거리 속에는 근면하고 성실한 일본 사회의 기강과 세태가 반영되어 있고 이른바 20세기 메이드 인 재팬의 성공 신화가 함축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청조사 편집부는 이 책이 성공한 이유로, 일본 특유의 따뜻하고 세밀한 세태와 인정이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정이 그리운 독자들에게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권한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